

여자 아역 배우 지정대사 1 - 어린 펜

어린 펜 오빠~!
어린 스크루지 펜~!! 또 마중 나왔어?
어린 펜 응!! 이거 주려구. (꺼내며) 자, 메리 크리스마스!
어린 스크루지 뭐야, 크리스마스 선물이야? "<헨젤과 그레텔>"
어린 펜 응!! 이거 안 읽었지?
어린 스크루지 응? (눈치 보곤) 응~ 고마워, 펜!
정령 저 책 얻으려고 옆집 심부름을 어찌나 열심히 해주던지.
스크루지 맞아. 정말 착한 내 동생 펜.
정령 스크루지도 착하네. 다 읽은 책이구만.
어린 스크루지 오빠는 선물이 없어서 어찌지?
어린 펜 또 책 읽어주면 되잖아. 어차피... 지금은 집에 못 가. 아빠 왔어.
어린 스크루지 (얼굴 어둡다) 그래? 그럼... 지금 읽어줄까?
어린 펜 지금? 너무 좋아!

여자 아역 배우 지정대사 2 - 꼬마 티나

꼬마 티나 으응? 이거 누가 준 거지?
스크루지 내가 줬지롱- (정령이 티나에게 남몰래 햇불을 갖는다~)
꼬마 티나 (눈 동그래지며) 누구세요?
스크루지 (깜짝 놀라) 뭐야. 내 말이 들려?
정령 뭐야, 네 말을 들어?
꼬마 티나 어, 또 누구세요? 혹시... 산타예요??
스크루지 음... 그쪽은 아닌 것 같고
꼬마 티나 선물 주면 산타랬는데.
정령 뭐, 아무렇게나 불러도 상관 없어. 내 존재 자체가, 선물이니까.
꼬마 티나 우와~ 거기도 선택 받았네요! (해맑게 목발 보여주며) 저처럼.